

광주 상무지구 2020년 연료전지 전기 공급

두산건설 참여 내년 착공

6만 가구 사용량 생산

330만 식재 친환경 효과

광주시의 상무지구에 2020년 7월부터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가 공급된다. 광주시는 25일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민자 사업자로 결정된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상무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오는 26일 한다”고 밝혔다.

상무지구 대체열원 개발을 위해 2013년 2월 첫 공모에 나선 지 4년 7개월 만이다.

연료전지(燃料電池) 발전사업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상무소각장이 폐쇄돼 열원이 사라지면서 연간 20억원의 투입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절감도 기대된다.

이 민자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으로 그동안 3차례나 공모가 무산되는 등 수년간 표류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두산건설과 기본약정서를 체결한 뒤 우선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협약에서 사업이행 보증, 착수와 준공 일자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 시행을 위

한 각종 인허가·신재생 인증서·자금조달 계획 등을 수립한 뒤 내년 6월 제1호수처리장 유휴부지 1만5000㎡에 1760억원을 투입해 착공, 2020년 7월 발전을 개시한다.

발전규모는 26.4MW/h와 연간 12만Gcal의 열원을 생산해 상무지구 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판매한다. 30년 생 소나무 330만 그루를 심은 2만3000㎡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

생산 전력은 광주지역 전력 사용량의 2.5% 수준으로 6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2015년 3.7%에서 6.65%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를 통해 생긴 열원은 광주 신도시 상무지구 내 광주시청, 광주서부교육청, 광주가정법원 등 27개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된다.

한편 상무지구는 지난 15년간 쓰레기를 소각하는 상무소각장에서 나온 폐열을 공급받아 냉난방을 해왔다. 하지만 소각장 폐쇄 후 대체열원 확보가 시급한 광주시는 2년 전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모에 나섰다. 경제성 부족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번번이 실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최초의 연료전지 사업이자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역에 기관 이전 행정복합타운 조성”

강기정 전 의원, 정책토론회서 제안

KTX 노선 철수로 이용객이 뚝 떨어진 광주역과 주변 일대를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하거나 부산역처럼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개발 정책연구소인 ‘광주성장 the CUBE’는 25일 광주 북구청에서 ‘도시재생의 출발, 광주역으로부터’를 주제로 두 번째 정책토론회를 했다.

연구소장인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치국 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기정 전 의원, 남현일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강 전 의원은 “광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기능회복이 중요하다”며 “광주역 철도부지 19만8000㎡를 부산역처럼 개발해 새로운 도심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전 의원은 “광주역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북부경찰서·북구청·시 교육청 등 노후한 공공기관을 옮

겨야 한다”며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남북관통 도로를 뚫어 숨통 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치국 전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부산역도 광주역과 마찬가지로 도심철도의 시가지 관통, 주변지역 소음·진동, 교통부절, 극심한 공동화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역은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 남현일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BMW 자동차박물관 같은 자동차박물관을 광주역 일원에 세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준하 정책연구소장은 “제시된 개발방안들을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광주역 일원 개발방안을 세우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첫 번째 포럼을 연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의원의 싱크탱크 격으로 지난 19일 첫 번째 포럼을 연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의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 노인 결핵 전수검진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전남도가 2017년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민간·공공 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전남도가 질병관리본부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핵 관리지표와 환자 신고·보고,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 전반적 결핵관리 현황을 반영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정부합동평가지표인 과거 결핵 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99.8%, 도말 양성 결핵환자 가족 검진율 100%로 모두 상위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결핵 전수검진도 진행중이다. 또한, 결핵환자와 수시 접촉으로 발병 우려가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인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반전반핵 평화 행진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반전반핵 한반도 평화 미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목주 기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태환 광주시의원, 학교숲 활성화 조례 발의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숲’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국·광산2·사진)은 2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조례는 ▲학교숲 조성관리 체계화를 위한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 ▲자연성과 교육활동 여건에 맞는 기능성 확보 ▲학생·교직원·지역주민들 접근성 고려 ▲자연체험, 생태학습이 가능한 교육성 강화 ▲수목 처분 관리 ▲학교숲 수종



식재 개발 ▲학교숲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숲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학교숲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친환경 생태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또 학교숲을 지역민과 공유해 마을 휴식처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의 한 사무관이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정질문이 끝난 지난 22일 시청 A 사무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듣고 있어요 말해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사무관은 이 글을 통해 “묻고 답하는 시정질문의 끝났다. ‘본 의원이’ 위엄스런 목소리지만 내가 볼 땐 아무래도 ‘안 본 의원’이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을 비꼬았다.

또 “미리 써주고 읽어내려가 종이 읽고 나서 마음에 새겨 담지 못했으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이 깔끔하지만 개운하지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A 사무관의 페이스북 글은 현재 삭제됐지만 해당 글이 시청과 시의회 안팎에 알려지면서 시의원들이 발끈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담회를 하고 A 사무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윤장현 시장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광종 광주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취임

광주시공사는 최근 유광종(65) 사장 직무대행 겸 경영본부장과 이순남(59) 사업본부장의 취임식을 했다.

〈사진〉 유광종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광주도시공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내부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고 경영자의 공석으로 인한 경영 혼란을 단기간 내에 수습할 수 있도록 취임 초부터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

며 경영 일선에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유광종 본부장은 강원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광주시 총무과장,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을 거쳐 지난 2011년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지냈다.

이순남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들 본부장의 임기는 22일부터 3년간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8·2 부동산 대책이후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전망!

혼돈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등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과 분석

개발은 넘쳐나는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토지시장에 대박이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신개발지를 찾아라!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보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 | |
|---------------|--|
| 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
| 서울 여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10월 2일(월) /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의도동 25-11 유수홀딩스(한진해운)빌딩 5층 / 1층 우리은행건물 (여의도역 4번 출구에서 100m 직진 후 좌회전 100m 우측) |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당일 특별 무료상담 진행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 (KLD) 한국토지개발원

DJim 카페 "한국토지개발원 토지의 숨"에 가입해서 부동산정보교류 함께해요

TALK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